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78期(2026.02.20) WWW.MINGHUI.ORG

한글판 1042호 minghui.or.kr



▲ 중국 전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의 대법제자들이 사부님께서 즐거운 설을 보내시기를 축원했다!

주요 내용

【수련교류】 RTC 플랫폼은 우선 수련인의 플랫폼이다

【수련교류】 ‘왜 삼퇴해야 하는가’ 문제에서 어떻게 법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인가

【수련교류】 진상이 근본이고 물품은 보조다

【 특 간 】 천국악단 법회

〈목차〉

■ 해외종합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3

■ 중국소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10

■ 수련교류

RTC 플랫폼은 우선 수련인의 플랫폼이다 12

‘왜 삼퇴해야 하는가’ 문제에서 어떻게 법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인가 .. 16

진상이 근본이고 물품은 보조다 19

수련자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 소침해지지 말아야 22

한 중학생의 수련 여정 25

‘참을 인(忍)’ 자에 대한 한 가지 이해 31

■ 법회특간

사람 구하는 법기를 부여해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32

소중한 추억은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 38

천국악단 항목에서 안으로 찾아 심성을 제고하다 44

천국악단에서의 체험 ‘수련은 모든 것을 관통한다’ 51

천국악단에서의 수련 체험을 회상하며 58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병오년(丙午年) 설날을 맞아, 국내외 각국의 대법제자들은 한없는 감사와 경의를 담아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 새해 인사를 올렸다. 중국 전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의 대법제자들이 사부님께 존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올리며, 사부님께서 즐거운 설을 보내시기를 축원했다! 제자들은 사부님의 기대에 부응해 더욱 정진하고, 더욱 성심을 다해 자신을 수련하며 세상 사람들을 구하겠습니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 페루, 베네수엘라,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탈리아, 러시아,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스위스, 폴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핀란드, 덴마크, 벨기에, 체코공화국, 세르비아, 그리스, 터키, 크로아티아, 팔레스타인,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키프로스,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인도, 이란, 아랍에미리트 등 56개 국가와 지역의 대법 제자들이 사부님께 명절 축하 카드와 인사를 올리며, 진심 어린 감사와 송고한 경의를 표했다. 많은 수련생은 대법을 수련할 수 있음이 더없이 큰 영광이라며, 인간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사부님에 대한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직 더욱 정진하고, 세 가지 일을 잘 해내며, 근본적인 집착을 내려놓고, 더 잘 사부님을 도와 중생을 구도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멜버른 파룬궁수련자들이 도심 트레저리 가든(Treasury Gardens)에 모여 끝없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자비롭고 위대하신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의 자비로운 인도와 보호 아래 ‘진선인(眞善

忍-진실·선량·인내)’ 고덕대법(高德大法)을 수련해 자신이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생명이 됐다고 마음 깊이 감사해했다. 올해 44세인 스튜어트(Stuart)는 두 딸의 아버지이자 대형 지붕 수리 회사 감독관이다. 어릴 때부터 질병에 시달렸던 그는 18세가 되기 전부터 영적 수련을 포함해 온갖 질병 치료법을 찾아헤맸다. 그러다 2000년, 폐기종을 앓던 어머니와 함께 멜버른 건강 박람회에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발견했다. 스튜어트는 말했다. “어머니가 수련을 시작하신 후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의사는 오랫동안 흡연으로 생긴 폐기종은 치료할 수 없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셨고 병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저는 파룬궁의 효과를 완전히 믿게 됐습니다.” “수련 전 제 척추는 물음표처럼 휘어 꼬추 증세가 뚜렷했고 매년 악화했습니다. 하지만 대법 수련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등이 기적으로 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를 오랫동안 괴롭히던 모든 알레르기 증상도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대법에 대한 제 믿음은 처음 수련할 때와 똑같이 전심전력이며 초심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일 년에 한 번 열리는 호주 다문화 축제(National Multicultural Festival)가 2026년 2월 6일부터 8일까지 수도 캔버라에서 열렸다. 이는 매년 캔버라에서 열리는 가장 성대한 행사 중 하나다. 파룬궁수련자는 부스를 설치해 참가했고, 시민들에게 공법을 시연하고 진상을 전했다. 파룬궁수련자는 또 무대에서 파룬궁의 완만하고 아름다운 5장 공법과 중국 전통 무용을 공연했다. 수련자들은 부스에서 북적거리는 관광객들에게 파룬궁을 소개하며 진선인의 아름다운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희망했다.

며칠간 끊임없이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진상을 알아봤으며, 현장에서 공법 동작을 배우는 사람도 있었다. 제빵사 와스와 카부예(Waswa Kabuye)는 다문화 축제에서 파룬따파 부스를 보고 발걸음을 멈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제5장 공법을 시도했다. 그는 공법을 배울 때 아주 강한 에너지를 느꼈다고 말했다. 카부예는 “방금 이 공법을 시도한 후 가부좌할 때 신체와 마음이 하나가 되는 느낌을 직접 체험했는데, 이런 느낌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줄곧 명상을 찾고 있었는데 이제야 드디어 찾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새해를 시작하며, 남아프리카공화국 4개 성 수도의 대법제자들은 각기 홍법(弘法)하고 진상을 알리며, 자신이 법을 얻은 사연과 수련 체험을 나누고 사부님께 감사를 표했다! 프리토리아(Pretoria)의 신수련생 셰팡 도널드(Tshepang Donald)는 법을 얻은 후의 기쁨을 나눴다. “처음 대법 공법을 배웠을 때 정말 신기한 상자가 저를 감싸는 것을 보았고, 제 몸에서 수많은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또 사부님 본인을 뵈었고 그분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해 당시 느꼈던 그 순수함과 신성함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감사를 표했다. “사부님께 새해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미래에 더 많은 사람이 수련에 들어오기를 희망합니다!”

2월 1일, 그리스의 연례 파룬따파 수련심득교류회가 아테네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테살로니키에서 온 수련자와 현재 그리스에 거주하는 중국 수련자들도 이번 법회에 참가했다. 수련자 15명이 법회에서 수련 심득을 교류하며 파룬따파를 지도로 삼아 품행을 향상하고 내면의 장애를 극복한 경험을 공유했다.

선원예술단 설립 20주년을 맞아, 선원 본부 소재지인 미국 뉴욕 업스테이트 오렌지 카운티(Orange County) 행정장관 스티븐 뉴하우스(Steven Neuhaus)가 영상을 통해 선원의 20년 성과를 축하했다. 아울러 표창장을 보내 선원 20년의 찬란한 여정을 높이 평가하며, 오렌지 카운티에 매우 뜻깊은 일로서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뉴하우스 행정장관은 표창장과 축하 서신을 보내 이 중요한 이정표를 축하했으며, 인터뷰에서 선원의 성과를 극찬했다.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선원예술단에 표창을 수여하고 표창하게 돼 매우 영광입니다. 선원 본부가 용천사(龍泉寺, 오렌지 카운티 디어파크 타운 소재)에 있기에 선원은 우리 카운티에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초기 1개 무용단에서 시작해 현재 8개 무용단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중국 전통 예술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원은 매년 800여 차례 공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선원을 관람했고 단원들과 교류한 적도 있습니다. 선원은 공산주의 이전 중국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주민으로서 우리는 선원을 우리의 이웃이라 부를 수 있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선원이 오렌지 카운티를 자신의 집으로 여기기 때문이지요. 선원의 설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다가올 20년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라며, 앞으로 20년, 나아가 더 먼 미래에도 우리가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계속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월 17일과 18일, 선원예술단이 다시 플로리다주 남부 브로워드 공연 예술 센터(Broward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를 방문해 관객들에게 시각적 향연을 선사했다. 2월 5일,

윌턴 매너스(Wilton Manors)시 스콧 뉴턴(Scott Newton) 시장은 표창장을 발표해 선원의 남부 플로리다 재방문을 환영하며 2026년 2월을 ‘선원 공연 예술의 달’로 선포했다.

2월 14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에서 미국 건국 250주년과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탄생 294주년을 기념하는 ‘대통령의 날’ 퍼레이드가 열렸다. 파룬궁수련자로 구성된 요고(腰鼓)팀과 꽃차는 이번 퍼레이드에 다시 초청받아 파룬따파의 진선인 복음을 전했다. 파룬궁수련자의 퍼레이드 행렬은 연도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심사위원단의 만장일치 호평을 받아 꽃차 부문 2위를 수상했다. 파룬궁수련자의 행렬이 본부석에 다다르자 두 명의 사회자가 말했다. “올해 퍼레이드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우 평화로운 풍경이네요. 고맙습니다.” 축하위원회 위원장 수 존슨(Sue Johnson)은 파룬궁수련자가 다시 한번 대통령의 날 퍼레이드에 참가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우리는 그들(파룬궁수련자 퍼레이드 행렬)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들은 작년에도 상을 받았으며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정말 기쁩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베트남 커뮤니티가 2026년 2월 8일 올드 포트에서 신년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이 초청받아 참석해 시민들과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나누며 환영을 받았다. 파룬따파의 ‘진선인’ 이념은 사람들의 마음속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일부 주민은 공법을 배우고 싶어 했다. 일부는 파룬궁수련자들의 박해반대 활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컴퓨터 과학자 로제르(Rosere)는 자신의 업무는 통상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파룬따파가 심신을 이완하고 내면의 평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기뻐하며 “느낌이 매우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로제르는 또한 ‘진선인’ 가치관에 공감했다. “매우 좋은 가치관입니다. 사람들은 가능한 한 이를 생활에 적용해야만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파룬궁수련자들은 2026년 2월 12일 오전 11시 중국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중국에서 중국공산당(중공)의 박해를 받고 있는 캐나다 파룬궁수련자의 가족, 친구 및 동료 수련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수련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중공이 26년간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자행해온 잔혹한 박해를 폭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심각한 인권 침해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중공 당국에 박해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 구금된 모든 파룬궁수련자를 무조건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설날이 다가올 무렵, 일본 나고야, 후쿠오카, 삿포로, 구마모토의 일부 파룬궁수련자가 진상 자료 배포와 중국영사관 앞 평화 항의 박해 반대 활동을 진행했다. 2월 15일 나고야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은 시내에서 가장 번화한 사카에(Sakae) 지구에서 진상 자료 배포 활동을 펼쳤다. 저녁에 수련자들은 다시 나고야 중국영사관 앞으로 이동해 중공이 27년간 자행해 온 잔혹한 파룬궁 박해에 항의했다. 2월 16일 선달그믐 밤, 일본 구마모토 지역 파룬궁수련자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시 주후쿠오카 중국영사관 앞을 찾아 평화 항의 활동을 하며, 국제사회가 27년간 이어진 박해에 관심을 두고 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 삿포로의 파룬궁수련자들도 2월 16일 선달그믐 당일 오후 삿포로 중국영사관 앞을 찾아 눈 속에서 ‘파룬궁 박해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박해 중단을 호소했다.

루세(Ruse)는 불가리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이자 중요한 문화 중심지 중 하나다. 2026년 1월 16일, ‘진선인 국제미술전’이 루세의 문화 명인 엘리아스 카네티(Elias Canetti)의 고향에서 막을 올렸다. 총 28점의 유화 작품이 전시됐다. 10여 곳이 넘는 불가리아 국가 및 지역 라디오 매체가 예술·문화 프로그램에서 이번 전시를 특집 보도했다. 드라고미르 드라가노프(Dragomir Draganov) 루세 주지사는 작품을 관람한 후 말했다. “전시회는 사람들이 예술의 언어를 통해 이러한 가치들을 반성하고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곳의 모든 작품은 가치란 구호가 아니라 체험하고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실제적인 생명의 경험임을 증명합니다.” 그는 이것들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도덕적 나침반’이라고 보았다.

역사 박물관장 니콜라이 네노프(Nikolay Nenov) 교수, 드라고미르 드라가노프(Dragomir Draganov) 루세 주지사, 루세 ‘엔젤 칸체프 대학교’의 국제 협력 부총장인 갈리나 이바노바(Galina Ivanova) 부교수가 개막식에 참석했다. 네노프 교수는 자신의 기관에서 ‘진선인 미술전’을 개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이번 전시가 사회에서 보기 드물게 사람들에게 깊은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예술이라고 표시하며, 작품들이 파룬따파 수련의 정신적 힘과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박해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수련자들의 강인함과 용기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의 파룬궁수련자 시자오쥘(席照軍)이 2025년 7월 내몽골 우란차부시 상두현에 갔다가 경찰에 납치돼 15일간 불법 구류된 후 우란차부시 지닝 구치소로 옮겨져 모함받았다. 10월 29일 상두현 검찰원에 의해 법원에 기소됐으며 12월 15일 상두현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2026년 2월 초 불법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시자오쥘은 신앙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납치와 불법 감금의 고초를 겪었다. 2007년 2월 24일에도 다시 납치된 그는 밧줄에 묶인 채 구타당했다. 그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동 감옥에 투옥돼 박해받았으며 감옥경찰에 의해 7개월 동안이나 독방에 갇혀 지내기도 했다.

랴오닝성 다렌시의 59세 파룬궁수련자 팡차이샤(方彩霞)가 2025년 6월 현지 경찰에 납치돼 다렌시 야오자 구치소에 불법 감금된 채 모함을 당하다가 2026년 1월 8일 간징쯔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 받았다. 6개월에 걸친 감금 박해로 인해 팡차이샤는 재판 당시 매우 초췌하고 허약하며 안색이 몹시 파리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말할 기력조차 없어 목소리가 가냘픈 실처럼 가늘었기에 법정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고, 걷는 것조차 힘에 부쳐 비틀거리며 위태로운 모습이었다. 2월 13일, 가족이 법원에 가서 팡차이샤에 대한 불법 판결문을 받았다. 팡차이샤는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2만 위안을 불법 선고받았다. 팡차이샤는 여러차례 납치당했다. 2000년 1월, 마싼자 노동수용소로 납치돼 3

년의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다. 2009년 4월 3일에 납치돼 다시 마싼자 노동수용소로 이송돼 1년 6개월간 박해당했다. 팡차이샤는 2016년 6월 28일에 납치돼 억울하게 4년형을 선고받았다.

쓰촨성 광안시 린수이현의 85세 파룬궁수련자 탕쑤란(唐素蘭)이 2025년 9월 납치된 후, 화잉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모함을 당했다. 2025년 11월 13일 린수이현 법원은 그녀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으며, 2026년 1월 28일 그녀를 두 번째로 강제 출두시켜 최종적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현재 그녀는 광안 구치소에 불법 수감 중이다. 이는 그녀가 세 번째로 불법 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1999년 7월 박해가 시작된 이래 탕쑤란 일가족 수련자 6명은 모두 잔혹한 박해를 받았으며 그중 4명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산둥성 서우광시의 72세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자 왕구이룽(王桂榮)은 집을 떠나 유랑생활을 하던 중, 2025년 9월 18일 서우광시 공안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 경찰에게 납치됐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왕구이룽은 서우광시 공안, 검찰, 법원의 모함을 받아 불법적인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026년 2월 5일 산둥성 여자감옥으로 압송돼 계속해서 불법 감금 박해를 받고 있다.

2020년 8월, 쓰촨성 쑤이닝시의 60세 파룬궁수련자 리위충(李玉瓊)이 현지 불법 요원들에게 납치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8월 파룬궁 자료를 배포하다가 전장쓰 파출소에 납치돼 가택수색을 당하고 구류소에 10일간 불법 구류당했다. 석방 후에도 리위충은 장기간 괴롭힘에 시달렸다.

RTC 플랫폼은 우선 수련인의 플랫폼이다

글/ 해외 대법제자

[명혜망] RTC 플랫폼은 대법제자가 중국에 진상을 알리는 항목이다. 이것은 많은 해외 대법제자가 알고 있고, 중공 악당도 다 알고 있다. 한동안 RTC 플랫폼의 분위기가 정상적이지 않았는데, 우선 당문화(黨文化)의 사상과 언행이 극히 심각했다. 협조인을 바꾼 후에도 개인 수련과 진상 알리기 측면에서 여전히 제고할 공간이 크며, 사람을 바꿨다고 해서 자신의 수련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항목 내 일부 수련자가 반영하기를, RTC 플랫폼의 어떤 조(組)는 듣기 좋은 말과 축복하는 말만 하라고 강조하고, 독한 맹세는 불길하다고 말하며 중생에게 탈퇴를 권한다고 한다. 이는 분명히 사부님 설법과 큰 차이가 있지만, 본래 이것은 플랫폼에서 수련을 이야기하는 대법제자가 제고해야 할 점이다. 진수자(眞修者)는 사람을 구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일이 쉽지 않으며, 작심삼일 식으로 대충 해서 완성될 수 없음을 다 안다. 진상 알리기가 급소를 찌르지 못하면 정말로 중국인이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와 중공의 세뇌 내용을 씻어버리고, 중공의 본질을 똑똑히 인식하며, 진심으로 중공과 단절하고, 근본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알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사람을 구하는 이 긴요한 시점에 RTC 플랫폼(탈당센터 포함)은 또다시 격렬한 갈등을 일으켜 각국 수백 명의 대법제자

에게 파급시켰다. 중공을 기쁘게 하는 이런 일은 누가 부추긴 것인가? 누가 늘 예리하게 수련인 속에서 심성 제고에 쓰이는 매번의 갈등을 포착해, 옆에서 부채질하고 갈등을 격화시키며, 그러고는 ‘사태가 커지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구경꾼 심리)’ 식으로 옆에서 남몰래 득의양양해하는가?

사부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훈계하시기를 갈등 앞에서 “옳은 것은 그이고 잘못된 건 나이니 다 틀 게 뭐 있느냐”(홍음3-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라고 하셨다. 그러나 갈등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는 우리 수련자들(노수련자 포함)은 ‘명(名)’을 특별히 중요시하거나, ‘권(權)’을 특별히 중요시하거나,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옳음’을 특별히 중요시한다. 더 많은 사람이 사건 속에서 시비(是非)를 논하며 자제하지 못하고, 스스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지 않는다. ‘이 갈등이 왜 나에게 닥쳤는가? 나의 어떤 측면을 제고해야 함을 반영하는가? 내가 어디에서 잘못했고 잘못 생각했는가? 사부님께서서는 왜 우리에게 “옳은 것은 그이고 잘못된 것은 나”라고 가르치셨는가?’

RTC는 우선 수련인의 플랫폼이다. 모두 대법제자로서 사람을 구하려 그곳에 간 것이니, 그곳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심성을 갈고 닦고 자신의 진상 알리기 능력을 제고해야만 착실하게 사람을 구할 수 있다. 문제에 부딪히면 당문화의 악(惡)과 투쟁(鬪), 현대관념 중의 ‘정글의 법칙(약육강식)’을 꺼내는데, 그렇다면 자신을 수련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과 같지 않은가? 착실히 수련하지 않으면 자신의 결말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감히 사람 구하는 것을 논하고 무슨 ‘공(功)’과 ‘명(名)’을 구하겠는가?

설령 어떻게 착실히 수련하는지 모른다 해도, 좋은 사람이 되려

면 중국 문화대혁명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속담에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함에 이롭고, 양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다”라고 했다. 수련의 이치는 속세와 반대다. 수련인이 모두 진수(眞修)하고 실수(實修)할 때, ‘시장(설 자리)’이 없는 도발자는 결국 두 가지 길밖에 남지 않는다. 대법에 동화되거나 아니면 멀리 도망치는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다. 첫째,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의 주력은 중국에 있다. 오늘날 4억 5800만 명이 삼퇴를 성명했는데, 주로 묵묵히 중국에 있으면서 진상을 알리는 대법제자들이 해낸 것이다. 그들이 없다면 해외 RTC 플랫폼 삼퇴팀의 몇백 명에 의지해 해낼 수 있겠는가? 분명히 해낼 수 없고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한 마음을 품고 끊임없이 자신의 심성 경지를 높여야만 서로 존중하고 분담해 협력할 수 있으며, 분수를 잊고 자아 팽창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해외 탈당센터는 전 세계 탈당 대국의 일부일 뿐 전 세계 탈당 운동을 대표할 수 없으며, 더욱이 탈당 운동의 공로를 독차지할 수 없다. 대법제자는 정치하지 않지만 우리는 중공의 사악함과 흉악함을 명백히 알려야만 중공에 옳아매인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입에서 벗어나게(魔口脫險)’ 할 수 있다. 이것은 천상(天象)에 협력하고 하늘의 뜻에 순응해 사람을 구하는 것으로, 그 속에 참여할 수 있음은 우리가 대법제자이기에 가질 수 있는 영광이다. 하늘의 공을 탐내서는 안 되며 더욱이 특권, 영웅, 공업(功業)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갈등 앞에서 오성(悟性)이 올라오지 못하고 개인의 눈앞의 이치만 고집하며, 출발점과 목적이 모두 자신이 맞고 남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이런 패턴이 초래한 교훈은 이미 너무 많고, 그르친 정사(正事)도 너무 많다. 이번에는 우리 더 많은 수련자가 법에서 제고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부님의 《전법륜(轉法輪)》 중 두 단락의 법을 복습하며, 각자 자신을 대조해 자신의 문제를 찾아보자.

“心性(썬썬)이란 무엇인가? 心性(썬썬)은 德(더)[德(더)는 일종 물질이다]를 포괄하고, 참음(忍)을 포괄하며, 깨달음(悟)을 포괄하고, 버림(捨)을 포괄하는데, 속인 중의 각종 욕망과 각종 집착심을 버리는 것이며, 또한 고생을 겪을 수 있어야 하는 등등 여러 방면의 것을 포괄한다. 사람의 心性(썬썬)이 여러 방면에서 모두 제고되어야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제고되어 올라올 수 있는데, 이는 공력(功力)이 제고되는 관건적인 원인 중 하나다.”

“이 우주 중에는 또 이런 이치가 있다. 당신이 아주 큰 고통을 감당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업력도 전화를 가져오게 된다. 당신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인데, 얼마만큼 크게 감당했으면 얼마만큼 크게 전화해 모두 德(더)로 변한다. 연공인(煉功人)은 바로 이 德(더)를 가지려는 것이 아닌가? 당신은 업력도 제거했으니 양득(兩得)이 아닌가. 만약 그가 당신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어디에 가서 心性(썬썬)을 제고하겠는가? 너도 좋고 나도 좋아, 모두 화기애애하게 거기 앉아 있어도 공이 자라는, 그런 일이 어디 있는가? 바로 그가 당신에게 이런 모순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런 心性(썬썬)을 제고할 기회가 생겼으며, 당신은 그 가운데서 자신의 心性(썬썬)을 제고할 수 있었는데, 당신의 이 心性(썬썬)이 곧 제고되어 올라오지 않았는가? 삼득(三得)이다. 당신은 연공인(煉功人)으로서 당신의 心性(썬썬)이 올라오면

당신의 공도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일거사득(一舉四得)이다. 당신은 어찌 그에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는가? 당신은 마음속으로 정말 그에게 톡톡히 감사드려야 하는데, 확실히 이렇다.”

‘왜 삼퇴해야 하는가’ 문제에서 어떻게 법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인가

글/ 홍콩 대법제자

[명혜망]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는 중국인들의 미래와 관계된다. 사람들에게 ‘왜 삼퇴해야 하는가’를 어떻게 톡톡히 알릴 것인가에 관해 사부님께서서는 대법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주셨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부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우선 당신을 탈당하게 하고, 나는 먼저 공산사당이 어떻게 나쁜지 말하며, 공산사당이 행한 사악한 일들을 말하고, 그것의 사악한 본질을 말하며, 그런 다음 당신이 그에게 탈당하라고 한다. 그가 탈당에 동의하기만 하면 좋다, 다시 그에게 진상을 말해도 그는 배척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그 사령(邪靈)의 관할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것이 만약 계속 조종한다면 신이 그것을 소멸한다.”(각지 설법 15-2018년 워싱턴DC 설법)

사부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면 좋다, 대법제자는 바로 당신에게 이 사악한 당을 폭로하여, 모두에게 사악한 당이 왜 파룬궁을 박해하며, 사악한 당은 무엇이며, 파룬궁이 무엇인지 보여 주겠다. 파룬궁이 무엇인지는 대법제자들이 줄곧 이야기해 왔으니

그럼 당신들도 사악한 당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라.”(2005년 샌프란시스코법회 설법)

사부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아직 인정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반드시 정사(正邪)의 대비 속에서 태도를 표시해야만 비로소 낙인(印記)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각지 설법 13-2015년 미국서부법회 설법)

제 현재 층차에서 사부님의 법을 통해 깨달은바, 중생이 진정으로 사령의 조종에서 벗어나는 것은 반드시 중생이 중공(중국공산당)의 사악한 본질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야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중공의 당·단·대(공산당, 공청단, 소선대)에서 탈퇴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혜롭고 정념이 충만하게 중공의 사악함을 말해야 하며 많은 실제 사례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체 장기적출, 역사상 수많은 정치운동을 일으켜 사람을 괴롭히고 해친 것, 1989년 ‘6.4 천안문 사태’, 산아제한(계획출산), 문화대혁명, 탐오와 부패, 화폐 남발과 천정부지의 집값 및 행정 벌금 등의 방식으로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 토지 강제 징발, 가옥 강제 철거, 멜라민 분유(독 분유), 독 백신, 하수구 식용유 등 서민의 절실한 이익과 건강을 짓밟고 훼손하는 것 등이다. 중공은 무법천지이고 인명을 경시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으니, 하늘이 그것을 멸하려 하므로 당신은 그 조직에서 탈퇴해 그것을 위해 순장되지 말고 그것의 희생양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해외 모 플랫폼이 제시한 탈퇴 권유 절차에서는 전화 연결 후 축복의 말과 덕담, 그리고 전통문화를 중점적으로 말하며 “마음이 선하면 복이 저절로 온다”, “4억 5천만 명이 탈퇴했으니 당신도 탈퇴하라”, “공산당은 무신론이다”, “탈퇴하면 평안하고

복을 받는다” 등의 말로 탈퇴를 권한다. 전화를 받은 대다수 세인은 탈퇴하겠다고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려, 기본 진상(중공의 사악함, 대법의 아름다움, 분신 조작 사건 등등)은 전혀 듣지 못했으나 플랫폼은 이것으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속인은 탈퇴한 후 플랫폼 교육 절차에 따라 다음 순서인 ‘9자 진언’을 전하고 분신 조작 사건을 말해주면(생체 장기적출은 맨 나중에야 말하게 돼 있음) 듣자마자 전화를 끊거나 욕을 퍼붓는다. 이것은 앞서 당·단·대 탈퇴에 동의한 것이 평안과 복을 얻기 위한 이점 때문일 뿐 그가 진정으로 진상을 명백히 안 것이 아니며, 여전히 사령에게 단단히 통제받고 있음을 설명한다. 극소수의 선량한 중생만이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들어 플랫폼 교육 절차에 열거된 기타 진상 내용(분신 조작 사건, 대법의 아름다움,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등)을 듣게 된다.

대법제자가 ‘삼퇴’를 원하는 것은 세인에게 있어 목숨이 달린 중대한 일이다. 만약 우리가 지혜롭고 정념으로 중공의 사악함을 말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으면, 세인이 ‘정사의 대비 속에서 태도를 표명’하지 못하고 얼떨결에 탈퇴하게 되며, 그 결과 그들은 여전히 사령의 조종하에 있게 된다. 그들은 여전히 중공의 사악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중공의 거짓말에 속아 대법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어 생명 구원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생을 달래서 삼퇴시키는 것은 사부님을 속이는 혐의가 있고 수련생 자신도 위덕(威德)이 없으며 자신의 신성한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플랫폼에 한때 진상을 알리는 데 일정한 작용을 했던 한 수련생이 나타나 매우 큰 편협함과 자아를 드러냈는데, 원래부터 평화롭고 선의적인 협력을

이해하지 못하더니 지금은 더더욱 패거리를 만들고 투쟁하는 잘못된 길로 빠져 심각하게 빗나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런데 플랫폼 측은 어떠한 다른 의견이나 의문 제기도 귀담아듣지 않고 광범위하게 통고를 발표해 각종 큰 딱지를 씌워 의문을 제기한 수련생과 선을 그으라고 모두에게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플랫폼에 접속할 권리마저 박탈한다고 하면서 마치 공산당의 문화대혁명 비판 투쟁처럼 만들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수련인이 마땅히 갖춰야 할 자비와 선념에 위배되며 파장의 범위를 확대했다.

우리는 하나의 대법을 함께 수련하며 항목 속에서 모두 사부님을 도와 사람을 구하고 자신을 잘 닦기 위해 있다. 갈등은 분명히 있겠지만 어떠한 갈등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대법제자는 반드시 주의력을 법을 기반으로 ‘왜 삼퇴해야 하는가’를 어떻게 잘 말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사람을 구하는 데에 두어야 한다.

이상은 2월 13일까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로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허스.

진상이 근본이고 물품은 보조다

글/ 해외 대법제자

[명혜망] 한 중국 수련자의 교류 문장을 보았는데, 음력 12월 21일 사람들이 장을 보는 시기를 이용해 ‘복(福)’자, ‘복’자 장식, 작은 상자(진상 플레이어)를 배포하며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고’,

‘평안을 전한’ 이야기를 했다. 장터에 한 번 가서 수련자는 총 70~80개의 ‘복’자와 10개의 ‘복’자 장식을 배포했다. 글의 결말에는 그날 밤 수련자가 잠든 듯 만 듯한 상태에서 천목(天目)으로 신기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글을 보고 이 수련자가 매우 선량하고 사람을 구하려는 염원과 노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느껴져 마음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솟아 올랐다. 동시에 과거 교류에서 어떤 수련자가 언급했던 일이 떠올랐다. 어떤 지역은 달력을 너무 많이 만들어 배포하는 수련자들이 도저히 다 배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어떤 지역은 옥 장식, 작은 호리병 등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좋아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사악이 가택수색을 해 이런 물건들을 많이 압수해 갔다.

다시 그 문장을 보면 수련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저는 ‘복’자를 짚어지고 이 인파 속에서 대면해서 배포했습니다. 배포 과정 중에 어떤 사람은 저에게 대련(對聯)을 달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상자(진상 플레이어)를 달라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저에게 ‘돈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드리는 이 물건은 돈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에서 방금 ‘복’자를 받은 형제가 저를 대신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물건이라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지만, 돈은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냈던 그 사람은 듣고 나서 기쁘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평안을 줄 수 있다니 좋군요, 저도 갖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수련자의 마음은 매우 순수하고 일심으로 세상 사람의 평안을 위했기에, 이런 선(善)의 에너지가 세상 사람에게 전달돼 결과는

자연히 화기애애했다. 하지만 행인의 그 말은 사실 매우 의미심장하다. 사부님 법신께서 사람의 입을 통해 대법제자를 일깨워 주신 것이 아닐까? “단지 ‘복’자, 장식, 플레이어만 배포하는 것은 돈을 나눠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이다. 이런 ‘돈 나눠주기’는 세상 사람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수련자의 아름다운 마음을 담고 있지만, 결국 배포한 것은 대법 진상이나 악당(공산당)의 박해를 폭로하는 진상이 아니다. 여기에 절대 흠잡으려는 뜻은 없으며 단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본 것이다.

우리는 법공부를 통해 다 알고 있다. 사람이 진상을 얻고 ‘과륜따파하오(法輪大法好-과륜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알며 악당과 결별해야만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대법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다급히 세상 사람에게 진상을 알려야 하며 진상이야말로 근본이다. ‘복’자, 대련, 달력, 장식, 호신부(護身符), 작은 연꽃 등 물품은 덕담과 마찬가지로 단지 진상을 알리기 전후의 보조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국 수련자에게 작고 선의 어린 당부를 하고자 한다. 수련자가 어떤 물품을 계기나 기념품으로 삼든지 근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즉 대면해서 진상을 알리거나 직접 진상 자료를 배포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해외 수련자가 현재 할 수 없는 일이며 오직 중국 수련자만이 이런 편리를 갖고 있다.

‘명혜주보(明慧週報)’, ‘금종자(金種子)’, ‘하늘이 내린 큰 복(天賜洪福)’, ‘진상(真相)’, ‘혜성(慧聲)’, ‘당신의 평안을 축원합니다(祝你平安)’, ‘천지창생(天地蒼生)’, ‘혜문도설(慧文圖說)’, ‘절처봉생(絕處逢生)’ 연환화(連環畫) 등, 이것들은 모두 대법제자가 정성껏 편집하고 그린 진상 자료들로, 풍격과 문화 수준이 각기 다

른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출판 주기가 다르기에 조건이 다른 수련자가 배포하기에 적합하다. 배포하는 수련자 자신이 만약 진지하게 읽는다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감화되어, 대면해서 진상을 알릴 때도 숙달되어 기량이 늘고 호랑이에 날개를 단 격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련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진상 자료를 위주로 하되, 그다음에 ‘복’자나 호신부 같은 물품을 줄 것을 당부한다.

모두에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중국 수련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정진합시다!

수련자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 소침해지지 말아야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수련생이 병업(病業)으로 세상을 떠난 일로 인해 일종의 절망감이 들었다. 세상을 떠난 수련생들은 대부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고, 사람을 구하는 데 자신의 모든 능력과 기력을 쏟아부은 사람들이었다. 타인에게 매우 열정적이었고, 수련생 누구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전력을 다해 도왔다. 하지만 마지막에 보기에는 박해가 심각해 수련을 소홀히 했거나 다시 일어서지 못해 결국 병업의 형식으로 끌려가 세상을 떠난 것처럼 보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난 수년 동안 보아온 그들의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수련을 잘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집 안팎에서 원망과 이해하지 못한다는 소리까지 들었다. 게다가 도움을 받았던 수련생들도 결과가 좋지 않아 떠날

사람은 떠나고 수련하지 않을 사람은 하지 않으며, 심지어 수련생을 팔아넘기기까지 했다. 모두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한 일들이다. 차라리 집에서 혼자 자신을 잘 닦고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안 되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 그러면 박해도 없을 것이고, 수련이 뒤쳐져 떨어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자 나는 소침해졌으며, 이전의 수련 과정을 전부 부정하고 사람을 구하는 일이나 병업 수련자를 돕는 일에도 소극적으로 변했다. 수련생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고도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안전하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기만을 생각했다.

아마도 내게 이런 바르지 못한 마음이 있어서인지, 사부님께서서는 집에서 수련하는 것과 세상을 떠난 그 수련생의 심성 차이를 보여주셨다.

세상을 떠난 그 수련생은 예전에 보도원이었다. 박해가 시작된 후 그녀는 사람들을 조직해 법공부를 하고 자료를 배포했으며, 박해가 있을 때마다 발정념을 조직했다. 병업 수련생이나 신수련생이 있으면 모두 도와주러 갔고, 장쩌민 고소 때도 앞장섰다. 나중에 그녀는 수련생의 밀고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됐으며, 심각한 박해를 받고 3서(三書, 세 가지 수련 포기 각서)를 쓰고서야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법공부도 적어졌고, 그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잘하지 못했다고 느끼면서도 열심히 자신의 마음을 찾고 성질을 고치려 노력했다. 그녀는 매번 좋은 의도로 좋은 일을 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고, 주변 수련생 중 누구도 그녀를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트집을 잡았다. 결국

사악이 그녀를 박해해 세상을 떠났다.

사부님께서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세상을 떠난 그 수련생의 현재 상황을 내게 보여주셨다. 그녀는 황금색의 화려한 가사를 입고 연화좌에 앉아 있었으며, 등 뒤에는 거대한 광환이 있었다. 그리고 옆에는 커다란 수직 입체 글자로 ‘자비(慈悲)’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사부님께서 인정하신 정각(正覺)이었다.

나는 무엇이 자비인지 단번에 깨달았다.

집에서 수련하며 수련생을 돕지 않고 오직 개인의 원만만을 생각하며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私)’를 위한 것이다. 개인 수련의 모든 행동과 조성된 난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반면 세상을 떠난 이 수련생은 비록 일을 한 결과가 좋은 경우가 드물었지만, 그녀가 내보낸 마음은 타인을 위한 것이었다. 비록 나중에 다시 일어서지 못했으나 공(功)이 과(過)보다 컸다. 또한 매번 좋은 일을 하고도 냉대를 당하고, 남들에게 비난받고, 무시당하는 등 상황에서도 그녀는 한결같이 자신을 찾고 남을 위해 생각했으며, 원망 없이 오직 자책할 뿐이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은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

사부님께서 보시는 것은 일을 하는 기점과 내보낸 그 사심 없는 마음이다. 비록 속인들 중에서는 똑같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생성되는 에너지의 순도는 완전히 다르다. 그 투명하고 순정한 하얀 빛은 개인 수련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나는 다시 정신을 차렸다. 원래 많은 단체 협력의 일들이 틀린 것이 아니었으며, 길을 잘못 든 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한 중학생의 수련 여정

글/ 중국 청소년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대법의 어린 제자입니다. 저는 대법에 동화되기 위해 왔고, 사부님의 정법(正法)을 도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명혜망을 빌려 제 수련 이야기의 일부를 적어 사부님께 보고드리려 합니다. 부족한 점은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저는 어머니를 따라 함께 법공부를 하고 연공을 했는데, 대부분 마지못해 하는 거라 초등학교 때는 법공부와 연공을 하기 싫어서 울고불고 떼를 쓰곤 했습니다. 그때는 수련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른 채 그저 수동적으로 어머니를 따라 법을 배우고 연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하던 어머니는 늘 대법제자들이 만든 영화나 노래, 그리고 신화나 신전문화(神傳文化)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영상과 소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노는 것에 빠져 있는 와중에도 부지불식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감화를 받아 대법 수련의 씨앗이 심어졌고, 제 몸과 마음은 다른 친구들이나 또래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무렵, 저는 대법제자들이 창작한 노래를 많이 배웠습니다. 노래가 참 듣기 좋았습니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유난히 아름답고 기세가 웅장하게 느껴져 모든 고민을 잊고 그 속에 즐거이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자주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풀고 기분을 전환하곤 했습니다.

중학생이 된 후 저는 점차 철이 들었고 겉모습도 많이 변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법공부하고 연공했지만, 사실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 매일 숙제하듯 해치웠습니다. 저의 변화는 그저 학교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매일 소극적인 상태에 있다 보니 이른바 사춘기 증상이 나타나 부모님께 자주 소리 지르고, 문제가 생겨도 안으로 찾을 줄 몰랐습니다.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욕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대법제자가 만든 노래를 부르고 영화를 보면서 정념이 크게 살아나고 본성이 깨어났습니다. 저는 서서히 제 수련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과거의 법공부와 연공은 그저 좋은 성적, 좋은 평판, 아니면 임무 완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속 이럴 순 없어. 대법 속에서 정진해야 해.’ 그래서 연공 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속인 환경에만 돌아가면 이리저리 휘둘려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과외 숙제하는 걸 보면 초조해하고, 연습 안 한 걸 보면 우쭐했습니다. 때로는 제때 알아차리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많은 경우 알아차리지 못하고 온갖 잡념에 빠져 많은 업을 짓고 말았습니다.

중학교 지리, 생물 시험이 다가오자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책을 외우고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며 수련인이라는 신분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사부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잊고 자신을 수련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리와 생물 성적은 아주 좋았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법을 외우자고 제안하셨는데, 저는 명예욕을 품고 동의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전법륜』을 한 단락씩 외우며 꾸준히 했습니다. 하지만 지리, 생물 시험이 끝나자 좋은 성적에 눈이 멀어 제가 얼마나 많은 문

제를 풀고 책을 외웠는지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다른 어린 대법제자들에게 공부하려면 문제를 많이 풀고 많이 외워야 한다고 훈계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자아가 팽창해 과시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른 과목 성적은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제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을 쓰지 말라고 하셨고, 덕분에 좋은 습관을 길렀습니다. 공부나 개인 수련 모두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때 시험에 나온다는 핑계로 난생처음 속인 소설을 읽었습니다. 중국 고전 명작이었는데 정신 없이 빠져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의를 주셨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개학 후 어머니가 못 보게 하자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마음이 근질거리고 계속 보고 싶은 욕망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경각심을 느꼈고 이 마음을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봐서 머릿속에 들어와 버렸고, 많은 사상업(思想業)을 지어 지금까지도 제게 영향을 주고 수련을 교란하고 있어 정말 후회됩니다.

중3 때 법을 계속 외우면서 예전엔 잘 모르던 『전법륜』의 내용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심성을 닦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해 가장 고통스러웠던 관문은 짝공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우린 아주 친한 친구였고 담임 선생님께 같이 앉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짝이 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짝이 된 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짝공은 자주 갑자기 화를 내며 수업 한 시간이나 오전 내내 제게 말을 안 걸고 차갑게 대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는 웃고 떠들면서 말이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남들 입방아에 오를까 봐 두려워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짝꿍은 거의 매일 화를 냈습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서 제가 웃으며 이름을 불러도 못 본 척 지나갔고, 저는 묵묵히 뒤를 따라가야 해서 무척 난처했습니다. 저도 자주 안으로 찾으며 친구에 대한 정(情)이 너무 무겁다는 걸 발견했고 친구 사이에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담담히 대하려 했는데 또 다른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친구가 날 무시하면 나도 무시하고, 친구가 안 보면 나도 안 보는 식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겉으로 싸움은 줄었지만 속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체육 시험 때 친구가 실력을 발휘 못 해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틈에서 친구를 찾아 걱정되는 마음에 조심스레 위로했습니다. 교실에 와서 친구는 제가 제대로 위로 안 해줬다며 원망했습니다. 제가 무심코 한마디 대꾸하자 친구가 목소리를 높여 따졌고, 저는 할 말을 잃은 채 억울하고 서러워졌습니다. 수업 끝날 때까지 겨우 참았다가 화장실로 달려가 평평 울었습니다. 속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계속 외우며 사부님을 불렀지만, 감당이 안 되는 듯 원망과 억울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업 종이 울려 붉어진 눈으로 교실에 갔습니다. 아마 친구도 알았을 겁니다. 친구는 사과도 하고 설명도 했지만 분한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며칠 뒤 그 차가운 얼굴을 또 봐야 한다 생각하니 겁이 났습니다. 그때 사부님의 『전법륜』 말씀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다고 당신도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바로 속인이 아닌가?” “당신이 속인과 마찬가지로 다투고 싸운다면 당신은 곧 속인이며, 당신이 그보다 더하다면 당신은 그 속인보다도 못하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을 내려놓아야지 보복심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수련인으로서 모

든 사람을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친구가 날 무시해도 난 선한 마음으로 도와야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교실에 들어갈 때마다 웃으며 인사했고, 자고 있으면 수업 시작을 알려줬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대법제자가 만든 노래를 보여줬습니다. 점차 1년 넘게 지속된 앙금이 사라졌고 친구도 속마음을 털어놓게 됐으며, 저도 예전처럼 정에 집착하지 않게 됐습니다.

제가 정진하려 마음먹자 사부님께서 제게 시간을 안배해주셨습니다. 예전 중3은 매주 토요일 수업이 있었는데 우리 때는 없어졌고, 점심때 학교에 남아 있어야 했지만 제가 주로 그 시간에 법 공부와 연공을 해서인지 우리 때부터 한 달 만에 그 규정이 취소됐습니다. 고입 시험이 다가오자 다들 초조해했고 학교 선생님도 매일 새로운 입시 상황을 이야기하며 긴장감을 조성했지만 저는 별로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숙제를 제때 하고, 학습지는 샀다가 시간이 없어 그만뒀습니다. 어느 학교에 가든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걱정과 당부 속에서도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고 즐거웠습니다. 숙제가 적어 복습 위주였기에 시험 전에 『전법륜』을 다 외우고 싶었습니다. 가끔 명예욕이 스치면 바로 알아차리고 없었습니다. 제가 매일 『전법륜』 한 쪽씩 외우기로 계획한 그날, 학교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마쳤습니다. 예전엔 없던 일이었죠. 딱 그 시간에 저는 법 한 쪽을 외울 수 있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저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동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시험 결과는 실력 이상이었습니다. 수학 시험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나 복잡하게 풀다가 틀린 걸 알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파

룬따파하오'를 몇 번 묵념하자 풀이법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15분을 남기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기하학의 마지막 고난도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사고가 민첩해지고 지혜가 샘물처럼 솟아 단숨에 해치웠습니다. 평소엔 상상도 못 할 일이었습니다. 결과는 현지 최고의 명문고 합격이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길을 바르게 걸으니 사부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자신을 수련하고 대법을 실증하여 가족들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법륜』을 외우던 그 시절은 제게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기분이 상쾌하고 온몸이 가벼웠으며 우주 대법의 불광(佛光)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덕분에 시험 때도 압박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불안해하며 문제 풀이에 매달릴 때, 저는 숙제를 마치고 남는 시간에 법을 외우고 연공하고 발정념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지 사부님의 대법이 알려주셨으니, 사부님이 계신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저의 수련 길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생 가운데 저를 선택해 우주 대법을 수련하게 하시고, 맹렬한 불길 속에서 단련시켜 대법제자로 만들어 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다그치고 기회를 소중히 여겨 파룬따파 속에서 정진하고 또 정진하며, 자신을 잘 닦고 대법을 수호하는 합격된 대법제자가 되겠습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법에 감사드립니다!

허스(舍十)

‘참을 인(忍)’ 자에 대한 한 가지 이해

글/ 중국 대법제자 원칭(元淸)

[명혜망] 얼마 전 나는 갑자기 한자 ‘인(忍)’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됐다.

인(忍)은 위가 칼날(刃)이고 아래는 마음(心)이니, 곧 갖가지 사람 마음(人心)이다.

우리는 수련자가 수련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만났을 때 일반인과 같아서 안 되며, 참고 양보하며 한 걸음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안다. 정신적 혹은 육체적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수련인의 심성 요구에 따라 행하고,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며 고생을 낙으로 삼는다….

이러한 수련자의 인(忍)은 바로 날카로운 칼날로 사람 마음을 베어버리는 과정이며, 사람 마음을 버리면 심성은 자연히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수련 과정에서 수련자는 일을 당하면 참아야 하며, 안으로 사람 마음을 찾아야 한다.

사부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참음(忍)은心性(썬썬)을 제고하는 관건이다.”(정진요지-무엇이 참음인가)

법회특간

사람 구하는 법기를 부여해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글/ 토론토 천국악단 단원

[명혜망]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천국악단은 2006년 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전부터 미국 수련생들이 이미 산에서 악기를 받아 연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가벼운 플루트를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하늘의 선녀가 너울너울 춤추는 듯한 아름다운 모습을 동경하며, 그 아름다운 장면이 눈앞에 있는 듯했고 생각할수록 하루빨리 플루트를 손에 넣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단장님이 “미국에서 악기들이 도착했으니 내일 지정된 장소로 와서 가져가세요”라고 통지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일찌감치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단장님과 몇몇 수련생이 커다란 상자 몇 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왜 작고 예쁜 상자는 안 보이지?’라며 의아해하던 제게 단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플루트, 클라리넷, 트럼펫, 색소폰 같은 악기는 수련생들이 미국에서 차례로 가져와야 해서 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있는 건 전부 저음부 악기들입니다.” 그러면서 단장님은 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상자를 가져가세요. 바리톤이라고 합니다.” 저는 속으로 ‘이건 싫어. 플루트나 예쁜 상자에 든 악기를 기다릴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수련생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떤 악기를 맡게 되든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단장님 손에서 무겁고 커다란 ‘바리톤’을 건네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불어봤지만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 한 수련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바리톤 하기 싫다면서요? 제가 불고 싶어요. 저는 어떤 악기든 상관없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4~5세쯤 된 포동포동하고 귀여운 남자아이가 풍화륜(風火輪)을 타고 놀고 있는데, 옆에서 한 할머니가 얼굴을 길게 늘어뜨린 채 몹시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나서 무슨 뜻일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사부님의 법 한 구절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쉽게 얻었다고 쉽게 잃어서는 안 된다.”(전법륜) 사부님의 일깨움에 정신이 번쩍 든 저는 얼른 악기 상자를 열어 악기를 안고 마우스피스에 대고 가볍게 불어보았습니다. “소리가 난다! 아, 소리가 났어!” 너무나 기뻐합니다. 게다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까지 불 수 있게 되자 도저히 다른 수련생에게 줄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련생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소리도 나고 음계도 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 ‘바리톤’은 제가 사람을 구하는 법기(法器)입니다.” 꿈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녀도 이 악기가 제 법기라는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는 플루트를 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바리톤’이 마치 꿈속의 귀여운 아이처럼 보였고 볼수록 사랑스러워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악기는 참으로 신기합니다. 악단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악기를 쓰고 있는데 작은 부품 1~2개만 교체했을 뿐입니다. 다른 수련생들은 벌써 악기를 2~3번씩 바꿨지만 제 악기는 여전히 맑고 우렁찬 소리를 냅니다. 저는 이 악기에 ‘명량(明亮)’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법기로 명명백백하게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고, 마음을 다

해 열심히 연습하고 연주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명량’은 혹독한 추위와 무더위를 함께 견디며 수백 번의 퍼레이드에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법기와 매번 있는 퍼레이드를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천국악단에 입단한 지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다른 항목과 일정이 겹쳐 2~3번 빠진 것 말고는 결석한 적이 없습니다.

천국악단의 전체적인 연주 수준을 높이고 행진 대열을 가지런히 유지하기 위해, 평소 매주 반나절씩 시간을 내어 연습합니다. 퍼레이드 전에는 각 파트의 대원이 과제를 제출해 합격해야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파트의 주선율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연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커페이션, 부점, 뒷박자, 셋잇단음표 등을 반드시 표현해야 하는데 제게는 큰 난제였습니다. 오래된 단원으로서 제대로 불지 못하고 부정확하면 체면이 깎일까 봐 과제 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저음부에 들어온 10여 명의 단원은 학교에서 전공했거나 음악 교사 출신이어서 실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비록 저는 오래된 단원이지만 입문 때 전문적인 지도 없이 거의 독학으로 모색하며 익혔기에, 입 모양이나 연주 기교 면에서 입단 전부터 지도를 받은 단원들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압박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전체 연주 수준 향상을 위해 파트에서 내준 과제를 정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 실력이 좋은 수련생에게 들려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수련생은 주의 깊게 듣고 “여기 셋잇단음표가 좀 부족해요”, “저기 부점 처리가 안 됐어요”라며 교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조언을 되새기며 반복해서 연습했고 한 번 연습을 시작하면 2~3시간씩 몰두했습니다. 정성은 배신하지

않는 법입니다. 마침내 저는 과제 제출이 두렵지 않게 됐고 때로는 가장 먼저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단원들이 실력이 부쩍 늘었다며 칭찬해 줄 때면 정말 기뻐고 비로소 팀과 하나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면을 차리는 마음과 사적인 마음을 닦아냈고, 자아를 내려놓고 겸허하게 수련생에게 배우는 마음을 길렀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단이 연주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상당히 크다. 에너지의 방출이든지 아니면 당신 목소리의 방출이든지 또는 음악이나 음표(音符) 자체든지 막론하고, 모두 법을 실증하고 에너지를 방사하는 작용을 일으켰다.” “그날 차이나타운 행진에서 천상의 각 공간에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들, 온 하늘이 모두 신이었는데, 전고(戰鼓)를 두드렸다. 많고 많은 그런 천병천장(天兵天將)이 모두 앞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로스앤젤레스시 법회 설법)

그래서 매번 퍼레이드 때마다 저는 감사한 마음을 품습니다. 사부님께서 제게 신기한 법기를 부여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사람을 구하는 심정 또한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매번 퍼레이드에 참가할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쉬지 않고 불며, 제가 연주하는 음표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도로 양옆의 중생들이 천국악단의 연주에 박수를 보내고, 사진과 영상을 찍으며,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모습, 구원받은 후의 그 행복한 표정들을 볼 때면, 저는 사부님께서 쓰신 시 ‘홍음 2’의 ‘매(梅)-원곡(元曲)’을 마음속 깊이 감탄하게 됩니다.

10년 전 제가 속인 공장에서 일할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퍼레이드를 마치고 차를 몰아 회사로 출근했는데, 제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것을 아는 동료들이 휴식 시간에 악기를 꺼내 연주를 보

여달라고 청했습니다. 저는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연주했습니다. 연주를 시작하자마자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우렁찬 소리가 하늘 끝까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에워싸고 한 곡 더 들려달라고 졸랐습니다. 저는 ‘파룬성왕(法輪聖王)’을 연주했습니다. 그날 이후 동료들은 근무할 때 저와 같은 조가 되길 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대법의 아름다움과 사람이 되는 도리, 중공(중국공산당) 우두머리가 질투심 때문에 대법과 대법제자들을 박해한 사실, 그리고 제가 진실한 말을 몇 마디 했다는 이유로 중공에 4번이나 붙잡혔던 일 등을 들려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삼퇴(중공의 3가지 조직 탈퇴)하고 진상을 알게 된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법 사부님께서 제게 주신 능력과 지혜 덕분입니다. 사부님께서 부여해주신 법기로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할 수 있음에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천국악단은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 혹은 공휴일에 지역 사회와 인근 소도시 퍼레이드에 참가합니다. 대개 4월부터 시작해 성탄절 전인 12월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성탄절 즈음에는 하루 2차례 퍼레이드가 예사이고 특별 요청이 있을 때는 3차례나 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바람과 비가 잦았고 하루 2번 있는 퍼레이드 장소 간의 거리도 꽤 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神)의 길을 걷는 신이기에 퍼레이드 중에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장대비가 쏟아졌지만 우리는 스쿨버스 안에서 발정념을 하고 ‘논어(論語)’를 3번, ‘천국악단’(홍음 4)을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비가 멈추고 하늘이 맑게 갠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번은 하루에 퍼레이드가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퍼레이드는 오전 11시 30분이었고 우리 대열은 앞쪽이었습니다. 저녁 6시에 또 퍼레이드가 있었기에 단장님이 서둘러 집결 장소로 모이라고 독촉했습니다. 저는 종종걸음으로 달려가다 그만 잔디밭에 있는 구멍을 밟았습니다. 한쪽 발이 구멍에 빠져 미끄러지면서 뒤틀려 나오지 않았고 다른 쪽 무릎은 땅에 부딪혔습니다. 그 와중에도 품에 안은 악기를 꼭 챙겼는데 트럼펫을 부는 수련생이 저를 부축해 일으켜주었습니다. 제 첫 일념은 ‘괜찮아,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사람 구하는 일을 파괴하고 교란하는 구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퍼레이드에 참가할 것이니 사부님께서 제자의 정념을 가지해 주시길 청합니다’였습니다. 퍼레이드가 시작되자 저는 내내 발정념을 하며 사부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뒤에 있던 수련생에게 “제가 걷는 게 이상해 보였나요?”라고 물으니 “전혀 몰랐는데요”라고 답했습니다. 사부님께서 내내 보호해주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 어떤 수련생들은 차 안에서 식사하다가 제 소식을 듣고 저를 위해 발정념을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퍼레이드 역시 사부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니 통증이 시작됐고 발 전체가 보라색으로 부어올랐습니다. 다음 주 퍼레이드 때 수련생이 발은 어떠냐고 묻기에 저는 “다 나았어요. 커다란 업을 한 덩이 제거했네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천국악단 항목 안에서 올해도 단 한 번의 빠짐없이 퍼레이드를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우리 대열이 위풍당당하고 힘차게 행진하는 사진을 볼

때면 제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성스러운 법기를 부여해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의 자비로운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천국악단 창단 20주년 법회 원고)

소중한 추억은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

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대법제자

[밍후이왕]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잊을 수 없는 그 날

2006년 4월 초, 사부님께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미국 서부 천국악단을 조직하러 오셨던 때를 생각하면 저는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음악적 기초도 없고 악기도 모르던 저는 바닥에 크고 작은 여러 악기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북이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 앞줄에 큰 북이 서고 수자폰은 맨 뒷줄에 서는데 모두 남자가 맡았고 작은 북은 여성이 쳤는데 키와 나이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북을 치기에는 나이가 많았고 무슨 악기를 다룰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악기를 전혀 모르는 저로서는 처음부터 배워야 하니 다른 수련생이 먼저 악기를 선택한 다음 남은 것을 해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욕에서 오신 천국악단 음악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후 모두 각자 필요에 따라 악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작은 악기는 다 가져가고 바리톤 호른이 하나 남아서 그것을 불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 달간 우리는 매일 밤 함께 연습했습니다. 당시 우리 매체가 있던 빌딩에는 빈방이 많아 조건이 매우 좋았습니다. 파트마다 각기 다른 방에서 연습했는데 바리톤 호른 파트는 대부분 나이 든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악기를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고 저마다 불어도 소리를 낼 수 없어 마음이 매우 초조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꾸준히 연습한 결과 드디어 소리를 낼 수 있었고 도레미를 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한창 방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사부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들어오시자 모두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연습한 것이 어떠냐고 친절하게 물으시면서 불어보라고 했습니다. 원래 소리를 낼 수 있었던 수련생도 그때는 소리 낼 수 없었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저를 가리키며 불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긴장한 나머지 저도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상냥하게 제 악기를 들고 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연주하는 원리를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숨을 내보내는지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부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바리톤 호른이 가장 쉬운 악기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연주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부님께서서는 저에게 다시 불라고 하셨고 저는 단숨에 도레미파를 불 수 있었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웃으시면서 “다른 분들을 데리고 연습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 잊지 못할 날들이 정말 눈에 선합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사부님께서 손수 천국악단 모자를 주실 때였습니다. 그때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격동됐고 긍지와 사명감이 저절로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사부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연주를 가르치시고 악기 사용법과 관리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저는 늘 사부님께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악기를 수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관악단은 군악단이라고도 하는데 군대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단 단원들은 그 시절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매일 퇴근하자마자 달려와 연습했습니다.

사부님의 가지(加持) 하에, 한 달간의 고생스러운 훈련 끝에 제7회 세계 파룬따파의 날인 2006년 5월 13일, 파룬궁수련자 200여 명으로 구성된 미국 서부 천국악단이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천국악단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아름다운 아메리카(America, the Beautiful)’ 두 곡을 연주했는데 차이나타운 시민들은 이런 거대한 진영의 군악단을 처음 보았습니다. 한 음표마다 모두 그들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간 듯 사람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었고, 사람들은 가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 위력은 대단히 컸고 길가에 있는 관객들의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도나도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저는 당시 퍼레이드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는데 파룬궁수련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났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유명 베테랑 음악가였던 악단장은 “설립 한 달 만에 이런 수준이 됐다면 정말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하는 사람이 적고 전혀 모르

는 단원도 있었는데 한 달 만에 이 정도 수준이 된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이렇게 파룬궁수련자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서부 각지 행사에 참여해 파룬궁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다

그 후 몇 년간 미국 서부 천국악단은 샌프란시스코와 주변 도시의 크고 작은 퍼레이드에 참가했고 긴 여정을 거쳐 로스앤젤레스의 크리스마스 대형 퍼레이드, 시애틀의 햇불 축제, 포틀랜드 로즈데이, 캐나다 밴쿠버의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캘거리 카우보이 퍼레이드 등에 참가했습니다.

몇 년간 우리는 외출할 때마다 버스 두 대를 빌려야 했고 수련생의 자가용 여러 대를 함께 해야 했습니다. 먼 길을 갈 때마다 밤새 버스를 타고 다녔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목적지에 도착하면 현지 수련생들이 풍성한 아침 식사를 차려줬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우리는 수만 관중이 기다리는 대형 퍼레이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단상을 지날 때 사회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먼 길을 온 파룬따파 천국악단은 이미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포틀랜드, 캐나다 등 여러 퍼레이드에 초청받았다고 저희를 소개했습니다. 관객들은 박수갈채를 보냈고 단원들은 저마다 최고의 컨디션을 선보이며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현지 시민들에게 선사했습니다.

퍼레이드가 끝나고 다시 그날 밤 돌아가는 차 안에서 단원들은 모두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중생이 구원받는 기쁨을 나눴습니다. 악단 벽장에 가득 찬 트로피를 볼 때마다 정말 천국악단 단원으로서의 긍지를 느끼며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악단이 매번 행진할 때마다 자비로우신 사부님의 가지를 떠날 수 없으며 우리는 파룬따파의 깃발을 걸고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각 지역민에게 선사했습

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중생의 웃음 짓고 환호하는 모습에서 우리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으며 사부님의 크나큰 자비와 불은호탕(佛恩浩蕩)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이것은 중생의 오래된 바람, 즉 대법에 구원되는 순간과 창세주의 부름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한 번은 캘리포니아 스탠퍼드에서 진상을 알릴 때 미국으로 친척 방문을 온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이 몇 년간 중국 언론이 더는 파룬궁을 언급하지 않아 파룬궁이 중국에서 자취를 감췄으니 외국에서도 자취를 감췄을 거로 생각했어요. 그해 7월 4일, 레드우드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를 보러 갔다가 파룬궁 팀을 만났는데 연공팀, 요고(腰鼓)팀, 꽃팀, 그리고 악단까지 있었어요! 정말 놀랐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본 파룬궁의 아름다움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파룬궁을 잘 알아봐야겠다고 했습니다.

견지

그 뒤 사분음표도 온음표도 모르던 우리가 천서(天書) 같이 전혀 알 수 없는 ‘콩나물’ 오선보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연습 장소도 정해지지 않아 오늘은 여기에서 내일은 다른 곳을 찾으며 때로는 공원에 가서 연습했는데 오는 사람도 점점 줄었습니다. 매체에서 일하거나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많은 수련생은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진곡 몇 곡만 볼 수 있으면 된다면 단체 연습을 하러 오지 않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가장 적을 때는 10여 명밖에 오지 않았는데 그때는 정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10여 명은 사부님께서 조직해 주신 악단이 이대로 흩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욕 천국악단 수련생이 겨울에 연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추운 뉴욕 겨울날, 그들은 이웃들의 휴식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공원이나 정류장에 가서 연습했습니다. 한 번은 공원에서 ‘성조기’(미국 국가)를 불고 있는 아주머니를 본 한 미국인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중국 할머니가 미국 국가를 연주하다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수련의 길에서 저도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각종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저는 사부님의 시사(詩詞) ‘신성한 노래’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묵묵히 부릅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방황 있으니
 매번 삶의 방향 잃을 때면
 마음속 노래 조용히 부르다네
 원망을 품지 말라
 선량함을 지키라
 사람은 대부분 천상에서 왔거니
 창세주를 기다리기 위해 사람이 됐다네
 그것은 중생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희망
 이 노래는 나를 깨어나게 하고
 이 노래는 나에게 힘을 준다네
 신성한 선율은 하늘을 맑아지게 하네[1]

수련의 길에서 수련생들이 서로 부축하고 도와야 합니다. 나중에 단원들이 잇따라 돌아왔고 신입 단원들도 가입했습니다. 지금 미국 서부 천국악단의 조건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습 장소가 있고 전문적인 음악 선생님도 있습니다.

사부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

[1] 리홍쓰(李洪志) 사부님의 시사(詩詞): ‘홍음4-신성한 노래’
(미국 서부 천국악단 수련심득 교류회 원고)

천국악단 항목에서 안으로 찾아 심성을 제고하다

글/ 토론토 천국악단 단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우리 천국악단이 걸어온 지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초기 뉴욕 천국악단의 설립부터 이후 캐나다 천국악단의 창단, 그리고 현재 전 세계 곳곳에 천국악단이 세워지기까지, 저와 악단 수련생들은 이 길 위의 희로애락과 수련 승화의 과정을 함께 목격하고 참여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니 저 또한 악단이라는 환경 속에서, 처음에는 사람 마음을 품고 항목에 참여하다가 점차 법으로 모든 것을 가늠하고 법의 표준으로 자신을 요구하는 법을 한 걸음씩 배워왔습니다.

처음 법을 얻었을 때 저는 그저 ‘남들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정법 항목에 참여했을 뿐, 정법 중 천국악단이 지닌 깊은 내포를 진정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끊임없는 법공부와 연주 활동, 수련생들과의 협력을 통해 저는 악단이 단순히 사람을

구하는 항목일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사람 마음을 비춰보고 심성을 연마하는 수련 환경임을 점차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 역시 일반 단원에서 소조 업무를 책임지는 파트 협조인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과정은 수련에 대한 저의 이해를 끊임없이 깊어지게 했습니다. 그동안 악단에서 보고 듣고 직접 겪은 수련 이야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신체, 가정, 환경 등 겹겹의 난관을 극복하며 수년 동안 불철주야 견지해 온 감동적인 사례도 있고, 각종 교란으로 인해 도중에 악단 항목을 놓아버린 뼈아픈 교훈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미 교류한 적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더 전개하지 않고, 최근 1년간 걸보기에 ‘구체적인 업무’ 속에서 제 심성을 제고했던 한 단락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악단 설립이 20년 가까이 되면서 초기에 가입했던 일부 수련생들이 다른 정법 항목을 맡거나 체력 저하 등의 이유로 잇따라 악단을 떠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각 파트에는 보편적으로 인원의 노령화와 신입 부족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젊은 역량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신수련생이 악단 상황을 알아보러 오면 서로 다른 파트에서 ‘경쟁적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출발점은 모두 악단을 위해서였지만 통일되고 체계적인 조율이 부족하다 보니, 실제로는 먼저 접촉하는 쪽에서 먼저 ‘사람을 머물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특정 파트의 인원이 다른 파트보다 눈에 띄게 많아지거나 심지어 두세 배나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파트 협조인 회의에서도 일부 수련생이 이런 우려를 제기했으나, 실행 가능한 방안이 부족한 데다 다들 각자의 관점에서 문제

를 고려하다 보니 결국 여전히 ‘선착순’ 방식을 따르게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간 존재해 왔지만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호른 파트는 인원이 늘 많지 않았지만 멤버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연습과 퍼레이드 때 인원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악단 참여 기회를 매우 소중히 여겼고 각자의 조건적 제약을 극복하며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점도 점차 드러났습니다. 기초가 다르고 연령 차이가 크다 보니 연주 능력에 뚜렷한 격차가 생겼습니다. 특히 일부 연장자 수련생들은 전문적인 지도가 부족해 초기에 형성된 연주 습관을 고치기 어려웠고, 매일 연습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어 음정과 음량 조절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파트 협조인으로서 저는 한편으로 수련생들의 헌신과 노고를 이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파트의 전체적인 수준이 향상되기를 바랐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당연히 젊은 수련생이 호른 파트에 들어 오기를 희망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체력이 좋으며, 인터넷 등을 통해 전문적인 학습 자원을 접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새로 온 젊은 수련생들을 직접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파트에 신입 대원이 속속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며 제 파트에는 변화가 없자, 제 내면에는 점차 무력감이 생겨났습니다.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내심 은연중에 조급함과 상실감을 느꼈고, 심지어 약간 소극적으로 ‘전체 협조인 수련생도 특별히 개입하지 않는데 나 혼자 조급해해 봐야 소용없다. 우리 파트 인원이 많지는 않아도 유지되는 되니 이대로 가자’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실 이미 방임하고 소극적인 마음을 품은 것이었으나 당시에는 뚜렷

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끊임없이 법공부를 하던 중 사부님의 설법을 읽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의 일은 마땅히 가장 신성해야 하므로 자신의 관념을 갖지 않을수록, 자신의 요소를 갖지 않을수록 일을 하려면 더욱 잘되고 성공하기가 쉽다.”(각지 설법 6-아태지역 수련생회의 설법) 저는 비로소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파트를 위해 조급해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과’에 대한 집착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비교하고 부러워하며 심지어 평형을 이루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전의 경험과 결합해 저는 점차 깨달았습니다. 음악적 기초가 없는 수련생이 호른을 배우는 것은 그 자체로 긴 적응기가 필요하며, 확고한 수련의 마음이 없다면 도중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설령 ‘쟁취’를 통해 신규 수련생을 영입한다 해도 정말로 남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인원수에 과도하게 마음을 쏟는단 말입니까? 진정으로 적합하고 인연 있는 수련생이라면 자연스럽게 사부님의 안배 아래 우리 파트로 올 것입니다. 사부님께서 매 제자를 보살피고 계시는데, 악단에 참여할 능력과 소원이 있는 수련생을 사부님께서 어찌 그런 기회를 놓치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심성 변화가 있은 후 일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여름, 우리 조 S 수련생의 열정적인 추천으로 두 수련생이 호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비록 그중 한 명인 남성 수련생은 학습의 난이도를 알고 다른 파트를 선택했지만, 다른 한 명인 젊은 여성 수련생은 남아서 계속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겨울이 된 후 P 수련생이 또 한 명의 젊은 남성 수련생을 소개했는데, 그 역시 호른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비록 현재 그들이 최종적으로 남게 될지는 확신

할 수 없으나 제 마음은 더 이상 초조하지 않고 오히려 든든함과 평온함이 더해졌습니다. 저는 ‘추구함이 없어야 스스로 얻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결과를 추구하지 않고 마음을 바르게 하며 생각을 바르게 갖는 것임을 체득했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대법제자들이 오늘날 한 일체는 바로 역사가 당신들에게 부여한 책임으로서 당신은 당당하게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잘하도록 하라. 무엇이든 모두 그 속에 있다.”(2003년 정월대보름 설법) 되돌아보니 우리 파트에서 처음에 악보조차 읽지 못하고 음정조차 구분하지 못하던 수련생들이, 바로 장기간의 견지 속에서 조금씩 오늘에 이르러 전체 연주에 협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속인이 보기에는 불가사의한 변화가 바로 수련 중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발라지면 모든 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악단은 어떤 항목들처럼 하루 종일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시간 수련생들은 각자 연습하다가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퍼레이드에 참가합니다. 바로 함께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많은 집착이 즉각 폭로되지는 않지만, 종종 구체적인 일 속에서 돌연 나타나 우리의 심성을 시험하곤 합니다.

새로 호른을 배우러 온 그 여학생은 열의가 매우 높았습니다. 조원들은 아끼는 마음에서 앞다투어 그녀에게 연습용 호른 두 대를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 다들 그녀를 격려하기 위해 호른이 배우기 그리 어렵지 않으며 입 모양의 변화만 잘 파악하면 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본의 아니게 그녀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동안 학습한 후 진전이 뚜렷하지 않자 그녀는 악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저에게 도움을 청

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 가서 음정이나 좀 들어줄 생각이었는데, 뜻밖에도 그녀는 이미 호른 두 대의 베어링 부분을 전부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순간 제 내면은 요동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악기가 아까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렬한 원망심이 즉각 올라와 그녀가 너무나 제멋대로이고 철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정밀한 악기를 아무런 전문적 지도 없이 무단으로 분해하다니, 게다가 내가 30분 넘게 운전해서 오게 해놓고 악기가 ‘망가진’ 꼴을 보여주다니 말입니다.

여러 차례 ‘연구’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어 결국 전문 수리점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또 주저했습니다. 비록 겉으로 저는 여전히 ‘참고’ 있었지만, 그것은 화를 품은 참음이었습니다. 비록 과하게 질책하지는 않았으나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기에 말투는 분명 경직되었고, 그 수련생의 기분도 덩달아 가라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이 원망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저는 심지어 그녀를 추천한 S 수련생에게 전화를 걸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다행히 S는 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일깨워주었습니다. “수련생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수련을 겨냥한 한 차례의 고비가 아니겠습니까?

법리에 대조해 보니 저는 전혀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수련생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루빨리 악단 정법 항목에 가입하려는 그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 스스로 더듬어가며 배우는 것이 쉽지 않음을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악기를 아끼는 마음’, ‘번거롭다는 생각’,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 등의 사람 마음에 끌려다녔던 것입니다. 진지하게

안으로 찾고 반복해서 반성한 후 제 마음가짐이 뚜렷하게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그 여학생은 수리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가게를 찾았다고 말해주었는데, 수리를 했어도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제 마음속에는 이전의 원망이 없었고 그저 차분하게 그녀와 함께 해결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어 저는 조의 다른 수련생에게 연락해 연습용 작은 호른 한 대를 그녀에게 빌려주었고, 동시에 그녀도 전문 선생님과 체계적인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새로 전문 호른을 구매했으며 다시는 함부로 분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녀를 위해 기뻐했으며, 수련 중에서 서로 성장하는 이 과정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경수심전(境隨心轉, 경지는 마음을 따라 변한다)’, ‘상유심생(相由心生, 상은 마음으로 인해 생긴다)’의 내포를 다시 한번 깊이 체득하게 해주었습니다. 소위 ‘번거로움’이란 사실 모두 수련 중의 고비입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일이 계속해서 집착심을 자극하지만, 마음을 바로 돌리면 환경도 그에 따라 호전됩니다. 저는 마음 닦음이 착실하고 마음이 평온한 수련생들과 저 사이의 격차를 분명히 보았으며, 천국악단이라는 환경 속에서 함께 수련하고 함께 제고하는 기회와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상은 그저 부족한 의견을 먼저 내놓아 좋은 의견을 끌어내는 것에 불과하며, 천국악단에서 심성을 수련한 저의 작은 체득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수련생들의 악단 수련 경험은 더욱 풍부하며 배울 점과 교류할 점이 더 많을 것입니다.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의 자비로운 지적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스(舍十)

(천국악단 창단 20주년 법회 원고)

천국악단에서의 체험 ‘수련은 모든 것을 관통한다’

글/ 뉴욕 천국악단 연주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의 교류 제목은 천국악단 활동을 통해 체득한 ‘수련은 모든 것을 관통한다’입니다.

1. 경건하게 기점을 바로잡으니 기본기가 향상되다

가장 처음 트럼펫을 배우기 시작한 목적은 매우 불순했으며, 그 안에는 과시심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트럼펫은 주선율을 연주할 수 있어 소리가 듣기 좋고, 악기가 작아 들고 다니기 번거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동안 불다 보니 아무리 노력해도 고음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습을 강화해 억지로 고음을 낼 수는 있었지만, 소리는 목이 쉰 듯했고 오래 버틸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트럼펫을 선생님께 배우면 잘 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전문 교사 세 분을 차례로 찾아가 매주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세 분 모두 “그저 힘껏 불고 연습을 많이 하면 됩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실력은 늘지 않았고, 결국 저는 포기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다시 트럼펫을 잡았습니다. 이번 목표는 3개월 뒤에 열리는 캘거리 카우보이 축제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연습을 시작했지만 예전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노력해도 고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저는 자신의 마음을 자세히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트럼펫을 시작할 때 목적이 불순했다는 것은 진작 알고 있었지만, 단순히 인식만 했을 뿐 진지하게 바로잡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부님, 제가 예전에 잘못했습니다. 트럼펫을 부는 것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아름다움을 입증하고 진상을 알리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임을 이제 압니다. 이번에 기점을 다시 바로잡고 새로 시작하려 하니 사부님의 가지(加持)를 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펫을 다시 불었지만 여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에도 안 됐지만, 수련은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님을 마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사부님께서 바로 무엇을 해주시길 기대하는 것 또한 불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대규모 단체 법공부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주말에 공원에서 선(申) 아주머니와 연공하고 싶다’는 생각에 집에 가자마자 전화를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나팔을 불 때 윗입술로 아랫입술을 감싸지 말고 상하로 바람이 나갈 구멍을 남긴 채 정상적으로 숨을 내뿜어라.’

집에 도착해 먼저 선 아주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정말 공교롭게도 아주머니 역시 비슷한 시간에 저와 주말에 공원에서 연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 전화를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트럼펫을 들고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대로 입 모양을 교정해 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고음이 나오기 시작했고 소리도 아주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이전의 제 기본기가 잘못됐던 것은 법을 실증하는 일을 하는 기점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기본기가 교정되도록 생각이 문득 일깨워진 것은, 경건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단체 법공부에 참여하며 공원에 가서 연공해 법을 실증하려 한 뒤에야 이뤄진 것입니다. 사부님께서서는 이러한 일들과 그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를 통해 저를 일깨워주셨으며, 어떤 일이든 특히 법을 실증하는 일은 우선 수련과 진상 알리기를 제1순위에 놓아야 함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전의 저는 기점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천국약단 가입이 진상을 알리는 일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엄숙하게 대하지 않았고 섞여 있는 집착심들을 마음 써서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순정하게 하고 더욱 경건해지며 구함 없이 행했을 때 비로소 법에 부합됐고, 사부님의 일깨워주심을 통해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2005년 샌프란시스코법회 설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정법 중에서 또 한 가지 정황을 발견하였다. 어떤 정황인가? 상당히 아득하고 먼 하나의 거대한 천체 중에서 그러한 생명의 상승은 당신들이 있는 천체 체계 중의 생명의 인식과는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 그들은 기능으로 하는데, 기능으로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는 이런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더욱 높은 한 층의 신도 낮은 층에서 물건을 발명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정도 창조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들 경지의 제고 중에 용해했다. 그의 경지가 제고될 수 있다면 그로 하여금 지혜가 열리게 하고, 그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성취·창조·상승이 있게 하는데, 상승한 후에 그는 자신은 자신의 도덕이 제고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얻은 것이며, 자신의 경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비로

소 이런 제고가 있게 된 것임을 끊임없이 인식할 수 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이 단락의 법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됐습니다.

2. 자아를 더 많이 내려놓으니 음색이 향상되다

고음을 낼 수 있게 된 후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음색이 안정되지 않아 때로는 날카롭고, 때로는 부드러우며, 때로는 공허하고, 때로는 풍성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의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대략 2주에 한 번씩 심성 시험이 찾아오는 점이었습니다. 매번 시험은 매우 괴로웠고 단번에 깔끔하게 넘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갈등 속에서 혹은 갈등 후에 안으로 찾았고, 그때마다 도달하는 지점은 늘 같았습니다. 즉, 갈등 속에서 저는 줄곧 상대방이 왜 내 기분을 고려하지 않는지만 생각했을 뿐, 제가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단 진심으로 상대방의 생각을 고려하게 되면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됐고, 가슴을 막고 있던 응어리가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 2주마다 반복되는 연마 과정 속에서 이기심과 원망 등 좋지 않은 물질들이 많이 깎여 나갔습니다. 점차 다른 사람과 협력할 때 예전보다 융화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트럼펫을 연습할 때의 마음가짐에도 미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불어야 원하는 효과를 낼까?’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트럼펫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하고 그 특징에 맞춰 연주 방법을 바꿔 트럼펫과 조화를 이뤄 최고의 소리를 내자’라는 마음이 됐습니다. 소리가 잘 나지 않을 때도 ‘아니, 왜 아직도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대신 ‘아직 내 악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나 보구나, 더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서서히 제 트럼펫의 음색은 더욱 부드러워

졌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최고의 경지는 결국 악기가 신체의 일부가 돼 아주 편안하게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악기와 잘 협력하는 것, 평소에 깨끗이 닦고 관리하는 것 또한 협력과 수련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3. 주의식이 강해지니 텅잉의 지체 현상이 줄어들다

제가 돌파하려고 노력 중인 큰 약점 중 하나는 주의식(主意識)이 충분히 강하지 못해 조금 큰 타격을 견디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타격을 입었을 때 직면하기 싫어서 휴대폰을 보며 뉴스나 역사 이야기 등 주의력을 분산시킬 만한 것들을 찾아보거나, 심지어 혼잣말을 하며 잠시 고통을 피하려 했습니다.

한번은 트럼펫 연습 과제를 녹음했는데, 제 연주가 너무나 나태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텅잉(Tonguing, 혀의 운동으로 공기 흐름을 단속하는 기술)을 할 때 항상 0.5초 정도 늦게 소리가 났습니다. 사부님께서 『전법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신체를 상관하려 하지 않고 그 자신은 늘 얼떨떨하며 늘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그런 때면 副意識(푸이스)·외래정보가 곧 그를 교란한다.” 그때부터 저는 의식적으로 주의식을 강화했습니다. 일단 휴대폰을 집어 들면 ‘내가 정말 이걸 보고 싶은가?’라고 생각했고,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내려놓고 바른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주의식이 좀 더 강해졌고 동시에 트럼펫의 텅잉 지체 현상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다시 타격이 오자 저는 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저에게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근본적인 집착이 숨겨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련을 통해 저는 고비 속에서 안으로 찾으면 갈등이 해소되고, 한 걸음 물러

나면 넓은 세상이 보이며, 집착심이 적으면 더 가벼워지고, 연공과 법공부에 전념하면 심신이 정화되며, 세인들에게 진상을 알리면 큰 위안을 얻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느낌들은 인간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충실함과 아름다움입니다. 때로는 수련 중에 부지불식간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곤 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수련하는 것이 편안해지기 위해서인가?’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인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신의 집착심을 제거해 수련인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진상을 알리는 데 힘이 생기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 구 우주와 함께 도태되는 것을 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통해 대각자는 자신의 중생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런 경지에 대한 제 느낌을 표현할 언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지 앞에서 어떠한 ‘편안함을 추구하는’ 생각도 매우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교류 원고를 쓰면서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됐고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4. 일으킬 수 있는 만큼의 역할을 하다

한번은 퍼레이드 도중 갑자기 악기에 고장이 났습니다. 키(밸브)를 눌렀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빌었습니다. “사부님 도와주세요, 이 나팔이 잘 작동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찾아보아라, 너의 심성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저는 안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너무 높게 잡고 있었고, 너무나 역할을 발휘하고 싶어 한

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파룬따파의 한 입자로 여기고, 발휘할 수 있는 만큼의 역할을 다해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남은 한 시간의 퍼레이드 동안 그 문제는 다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의 한 입자는 매우 미미하지만, 하나로 융합될 때 사람을 구하는 위력은 거대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너무 높게 놓는다면 실제로는 대법을 제1순위에 놓지 않은 것이며, 이때는 대법의 힘이 가지 되지 않아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게 됩니다.

맺음말

최근 수련에서 두드러지게 느낀 점은, 어떤 갈등이나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첫 일념에 자신을 연공인으로 간주하고 그 일념을 지키며 끊임없이 안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할 것 같지만, “이 일에는 분명 내가 제고해야 할 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경건하게 계속 찾아 나간다면 문득 한 생각이 들어오며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과정은 자신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제자가 제고하려는 경건한 소망이 있음을 보신 사부님께서 제자를 돕고 일깨워주셔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의 그 어떤 한 걸음의 제고도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살핌과 일깨워주심을 떠날 수 없습니다.

새해에는 저와 수련생 여러분 모두가 매 순간 자신이 수련인임을 잊지 말고, 더욱 정진해 사부님을 도와 사람을 구하는 사명을 더 잘 완수하기를 희망합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허스(舍十)

(천국악단 설립 20주년 법회 원고)

천국악단에서의 수련 체험을 회상하며

글/ 뉴욕 천국악단 연주자

[명혜망]

1. 사부님께서 저를 천국악단 수련의 문으로 이끄시다

20여 년 수련 중에서 제 오성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천국악단 가입 문제에서는 하사(下士)가 됐습니다.

천국악단이 설립될 때, 뉴저지주 보도소 책임자가 메일을 보내 사부님께서 관악단을 설립하려 하시니 조건이 되는 수련생은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음악 기초가 좀 있었고 젊었을 때 바이올린을 켜서 악보 보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악기 하나를 배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50대인데 어떻게 악기를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산(山)에 올라가 노동할 때, 산에서 적지 않은 수련생이 나팔을 들고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수련생들은 음악 기초도 없는데 배울 수 있을까?’

하지만 자비로운 사부님께서서는 저라는 하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 후 저와 수련생 몇 명이 다시 산에 올라가 일을 하다가 마침 사부님을 뵈게 됐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우리를 보시자마자 첫마디로 “여러분 몇 명은 어서 가서 악기를 받아 오후부터 연습에 참가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머리가 멍했습니다. 지난주에 남을 비웃었는데 지금 사부님께서 제게 악단에 들어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부님 말씀에 당연히 복종해야 했기에 우리는 서둘러 악기를 나눠주는 수련생을 찾아갔습니다. 그 수련생이 “어

편 악기를 고르시겠어요?”라고 물었습니다. 문득 사부님께서 트럼펫을 부신다는 생각이 났고, 제가 트럼펫을 배우면 어찌면 사부님께서 가르쳐 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트럼펫을 골랐습니다.

과연 오후 연습 때, 사부님께서서는 트럼펫을 배우는 신입 수련생 몇 명을 불러 둥글게 모이게 하셨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직접 트럼펫을 들고 시범을 보이시며 기본 음표부터 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금방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를 배웠지만 더 높은 음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련생들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전주를 부는데 저는 고음 ‘미’조차 붙지 못해 마음이 무척 조급했습니다. 다른 수련생에게 물어봐도 요령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막막해서 조급해하고 있을 때, 마침 사부님께서 리허설 홀에서 다른 수련생 지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얼른 앞으로 가서 여쭙었습니다. “사부님, 저는 왜 고음이 안 올라갈까요?” 사부님께서서는 제 연주 자세를 보시더니 교정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해보니 과연 고음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얼른 사부님께 감사드리고 옆으로 가서 계속 연습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사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반복해서 연습하니 고음을 비교적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산에 올라가 연습할 때 사부님께서 저를 보시고 한번 불러보라고 하셨습니다. 불러보니 고음 ‘솔’뿐만 아니라 ‘라’까지 소리가 났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무척 기뻐하시며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연습하세요.” 사부님의 격려에 자신감이 생겼고, 얼마 안 있어 ‘파룬따파하오’ 전주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나중에 사부님 말씀을 들어보니, 일반인은 처음에 트럼펫을 배울 때 ‘도’밖에 못 불고, 한 음 한 음 올라가서 고음 ‘솔’과 ‘라’를 불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트럼펫 교본을 샀는데, 과연 일반인은 3~4급 수준이 돼야 고음 ‘솔’과 ‘라’를 불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몇 주 연습하고 ‘파룬따파하오’를 불어낸 것입니다. 기억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수련생이 ‘파룬따파하오’ 악보를 가지고 일반인 선생님에게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악보를 보고는 “이렇게 어려운 곡은 당신 수준으로는 도저히 불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초보자들이 사부님의 가지(加持)가 없었다면 어떻게 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고음은 배웠지만 호흡이 큰 문제였습니다. 호흡법을 모르면 고음을 불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음색도 좋지 않습니다. 한번은 사부님께서 제가 힘들게 부는 것을 보시고 따로 부르셔서 호흡법을 가르쳐 주셨고, 나중에 전체 수련생을 모아놓고 호흡법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곧 합주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트럼펫 수련생 대부분이 초보라 입술에 힘이 없어 오래 연습하면 소리가 안 났습니다. 한번은 트럼펫 연주자들이 지쳐서 소리가 안 날 때, 갑자기 뒤에서 청아하고 우렁찬 트럼펫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잘 부나 하고 뒤돌아보니 바로 사부님이셨습니다! 그 후 사부님께서는 시간만 나면 합주에 오셨는데, 항상 맨 뒷줄에 앉으셨지만 그 우렁차고 아름다운 소리는 리허설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번은 웨스트버지니아주 퍼레이드에 참가했는데, 아침 일찍 목적지에 도착해보니 사부님께서 이미 와 계셨습니다. 집결지는 한 대학교 캠퍼스였는데, 차에서 내려 정돈한 뒤 캠퍼스에서 연습했

습니다. 연습하고 있는데 사부님께서 제 쪽으로 오셨습니다. 얼른 인사를 드리자 사부님께서서는 주머니에서 새 마우스피스를 꺼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흐(Bach) 마우스피스는 당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부님께서 주신 마우스피스를 받아드니 가슴속으로 따뜻한 기운이 흘러들며 지난 일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연습할 때 사부님께서 제 마우스피스의 은 도금이 벗겨진 것을 보시고 “이 마우스피스는 보기 안 좋군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수련생 말이 악기점에 보내 다시 도금하면 된다고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바빠서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사부님께서서는 그 사소한 일을 마음에 두셨다가 저를 위해 새 마우스피스를 사주신 것입니다. 사부님의 세심한 배려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사부님께서서는 이미 멀리 가고 계셨습니다. 아차, ‘감사합니다’라는 말조차 잊다니! 저는 급히 큰 소리로 “사부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나중에 저는 장차 악기를 사게 되면 꼭 바흐 제품을 사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퍼레이드가 시작되려는데 트럼펫 연주자가 한 명 부족했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파란색 단복을 입으시고 우리 트럼펫 대열에 서서 함께 행진하려 하셨습니다. 수련생들은 차마 사부님께서 직접 퍼레이드에 참가하시게 할 수 없었지만, 사부님께서서는 트럼펫 대열에 빈자리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막 출발하려는데 한 수련생이 “트럼펫 연주자가 왔어요!”라고 외쳤습니다. 수련생들은 얼른 사부님께 그 자리를 넘겨드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부님께서서는 “그럼 내가 여러분의 사진을 찍어주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퍼레이드가 시작됐고 사부님께서서는 대열 앞에서 우리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수련생들은 사부님께서서 함께하신다는 생각에 힘이 솟아 신나게 연주했습니다. 저도 사부님께서 주신 새 마우스피스를 쓰니 호랑이에 날개를 단 격이 되어 불면 불수록 힘이 났습니다. 퍼레이드 거리가 꽤 길었지만 다들 피곤한 줄 몰랐고 금방 종점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모두 사부님께서서 가지해 주셔서 피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점 잔디밭에서 쉬고 있는데 한 수련생이 사부님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해서 다들 기뻐하며 사부님 곁으로 모여 정법(正法) 역사의 영원한 한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그 후 사부님께서서는 우리를 데리고 미국 최정상급 군악대 리허설을 관람하게 하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사부님께서서 우리도 장차 그 수준에 도달해야 함을 알려주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산에서 보낸 그 아름다운 시절을 회상하면 불은호탕(佛恩浩蕩) 속에 목욕하는 무한한 행복을 느낍니다.

2. 수행은 개인에게 달렸다

2006년 여름, 천국악단은 산을 내려와 뉴욕시로 갔다가 나중에 뉴저지주로 옮겼습니다. 산을 떠나고 사부님 곁을 떠나니 스스로 모색하며 연습해야 했습니다. 비록 지역사회의 퍼레이드에 독립적으로 참가해 홍법(洪法)하고 진상을 알리는 좋은 효과를 거두었지만, 개인 연주 기량은 더디게 향상됐습니다. 특히 트럼펫은 음색과 지구력이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작곡가가 난도 높은 곡을 몇 곡 만들었는데 더블 텅잉, 트리플 텅잉, 8도 도약 등 고난도 기교가 필요해 독학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악단에 새 지휘자가 왔는데, 각 파트마다 전문 교사를 초빙해 배우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펫 파트는 음대 석사 줄

업생을 선생님이로 모셨습니다. 선생님은 잘 가르쳤고, 비록 단체 수업이었지만 우리는 크게 발전하여 연주 기교와 음색이 향상됐습니다. 1년 후에는 난도가 꽤 높은 ‘성조기여 영원하라’를 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중에 천국악단에 새로 들어온 젊은 제자 두 명이 실력을 높이려고 이 트럼펫 선생님께 개인 지도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그들은 실력이 부쩍 늘어 연주 기술뿐만 아니라 음색도 매우 듣기 좋아졌습니다.

그들의 비약적인 발전을 보고 저도 이 선생님께 개인 지도를 받으면 몇 달 안에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수업을 받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지만 선생님은 어려운 곡은 안 가르치고 계속 연습곡만 붙게 하면서 연주 자세를 끊임없이 교정했습니다. 실력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았습니다. 좀 낙심하고 있을 때, 합주 연습 중 지휘자가 제게 “음색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네요”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 선생님께 여쭙보니, 선생님도 “맞아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줄곧 선생님의 연주 음색을 기준으로 삼았기에 늘 제 수준이 안 된다고 느낀 것입니다. 이때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구함이 없어야 스스로 얻는다(無求而自得)’란 법리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제 발전은 부지불식간에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제가 기대했던 일취월장식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급공근리(急功近利-성공을 서두르고 눈앞의 이익을 탐하는)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얼마나 발전할지 추구하지 않고 그저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성실히 마치고 선생님의 요구에 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매달 매년이

지나갔고, 애초에 7~8개월만 배우고 끝내려던 계획은 온데간데없이 선생님의 지도를 떠날 수 없게 됐습니다.

연습을 거듭하면서 기술도 끊임없이 향상됐습니다. 고음을 더 잘 불게 하려고 선생님이 입 모양(암부슈어)을 교정해 주셨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고비가 됐습니다. 처음에 입 모양을 바꾸니 고음은커녕 원래 불 수 있던 고음조차 안 나왔습니다. 일주일을 연습해도 효과가 없자 선생님의 방법이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의구심을 눈치채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적응하는 데 몇 주가 필요해요”라고 했습니다. 또 일주일을 연습해도 효과가 없어 마음이 더 조급해졌고, 선생님께 안 바꾸겠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조급해하는 것을 보시더니 “저를 믿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선생님 방법이 틀렸다고 말할 순 없었지만, 그 방법이 제 입 모양에는 안 맞는 게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다행히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습니다. 실망하려던 찰나, 어느 날 갑자기 고음이 아주 편안하고 자유롭게 나왔습니다!

뜻밖의 변화에 너무나 기뻐고, 동시에 제 집착을 고집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입 모양 교정은 실패했을 테니까요. 동시에 ‘믿음(信)’에서 부족했음을 보았습니다. 사부님께서는 “학생이 학교와 선생님을 미신하지 않으면 지식을 얻을 수 없으며”(정진요지-무엇이 미신인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선생님조차 믿지 않았으니, 저 자신에 집착하는 마음이 너무 강했던 게 아닙니까? 그 후로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했고, 당장 효과가 안 보여도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추구하지 말고 급공근리하지 말자고 자신을 일깨웠습니다. 입 모양을 바꾼 후 고음이 갈수록 편해졌고, 선생님은 고음 C와 D가 포함된 더

어려운 연습곡을 붙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트럼펫의 고전 교재인 ‘아르방(Arban’s)’에 따라 더블 텅잉, 트리플 텅잉을 연습하게 하셨습니다. 이어 아르방에 있는 고전 및 팝 멜로디 악구 기교 과정을 연습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는 150곡의 선율이 있는데, 선생님은 1~2주에 한 곡씩 연습하게 하셨고, 지금 저는 130여 곡을 붙였습니다.

이 연습을 통해 다양한 악구 연주법에 익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초견 능력(악보를 처음 보고 바로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능력)과 곡 이해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동시에 선생님은 난도가 꽤 높은 고전 트럼펫 협주곡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배우면서 마치 선생님이 저를 드넓은 천지, 배움에 끝이 없는 경지로 데려다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트럼펫 학습이 수련과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많은 이념과 방법이 제가 기존에 알던 인식과 정반대였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고음을 불러면 힘을 짝 주고 세계 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호흡과 입 모양을 잘 조절한 상태에서 가볍게 불어야 오히려 고음이 잘 났습니다.

또 예전에는 고음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저음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예전에는 우리가 퍼레이드에서 부는 곡들이 비교적 간단하고 수년간 불어서 다 외웠으니 더 향상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주 수준이 높아진 뒤 다시 이 곡들을 불어보니, 작곡가가 요구하는 표현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곡은 제가 붙어본 다른 곡들보다 난도가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이 곡들을 잘 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파룬따파하오’ 전주인데, 저는 지금까지도 잘 불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악단에서 시험을 본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곡을 깊이 이해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연주자로서 단순히 곡을 붙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지휘자가 말했듯이 노래하듯 작곡가의 요구에 따라 곡을 표현해내야 합니다. 사실 제 트럼펫 선생님도 그렇게 요구합니다. 선생님은 종종 연주하기 전에 곡을 먼저 불러보게 하는데, 그러면 감정을 이입하기 쉽습니다. 선생님께 수업을 받으면서 시간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매주 숙제를 해야 하고 대부분 새 곡이라 연습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매주 3일은 항목 회사에 출근하고, 나머지 날에는 신문 배달이나 다른 정법 항목에 참여하며, 매일 법공부와 연공도 해야 하니 진짜 트럼펫을 연습할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쪼개 쓰는 방법을 썼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트럼펫을 들고 20분이든 30분이든 연습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 준 아내(수련생)에게 감사합니다. 밥 먹고 바로 법공부와 연공을 하면 조금도 지체되지 않습니다. 저는 인터넷, TV, 잡담을 줄이고 저와 무관한 회의를 피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또 집에서 컴퓨터 작업을 할 때 트럼펫을 옆에 두고 쉬는 시간에 몇 번씩 불었고, 주말에 시간이 많으면 좀 더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모아 연습하면 충분했고, 연공과 법공부, 대법의 다른 항목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맺음말

세월이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20년이 지났고, 우리가 산을 내려온 지도 19년이 넘었습니다. 10여 년 전 우리 트럼펫 선생님이 당시 지휘자의 초빙으로 천국악단에 오셨습니다. 우리 파트의 많은 수련생이 그분 수업을 들었고 지금까지도 수업을 듣는 수련

생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선생님은 진상을 알게 됐고 선원(神韻)을 관람했으며 우리 악단을 더 잘 알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등장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분명 사부님의 배치일 것입니다. 사부님께서 관악기가 스승 없이 향상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인연 있는 사람을 배치해 우리를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기술을 끊임없이 향상하게 해 더 좋은 사람을 구하는 효과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 산에서나 산 아래서나 사부님께서 줄곧 우리를 보살피 주셨습니다. 사부님께서 직접 키워주신 트럼펫 연주자로서 저는 무한한 행복을 느낍니다. 저를 위해 이 수련의 길을 배치해 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리며, 사부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이 길을 곳곳이 걸어가겠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악단 설립 20주년 법회 원고)



▲ 미국, 캐나다, 브라질,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루마니아,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 56개 국가와 지역의 대법 제자들이 사부님께 명절 축하 카드와 인사를 올리며, 진심 어린 감사와 숭고한 경의를 표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11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5829만 1130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